**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영화 - “명량”**

외주구매팀 노용성과장

8월이 시작되는 주말, 실연으로 인한 외로움에 빠져있는 처남을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초대해 술 한 잔 기울이고, 다음날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만에 영화관을 찾았다.

오랜만에 방문한 영화관에서 제일 눈에 띄는 영화가 바로 ‘명량’ 이었다. 당시 개봉 4일 차였던 “명량”은 압도적인 관객들의 반응으로 예매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덕분에 표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다.

이후, 영화는 12일만에 1,000만 관객을 넘고, 우리나라 최다 관객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아바타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영화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영화는 이순신장군의 일생에서도 가장 힘들고 참담했던 시기이자 3대 대첩 중 하나인 명량해전이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임진왜란 6년으로 일본군이 호남과 중부지방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수군을 대거 투인하여 조선수군이 궤멸된 상태였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동의어인 ‘거북선’도 없었던 때로 이순신 장군 본인 역시 모함으로 인해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위에서 끌려내려져 도원수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던 시기였다.

이순신 장군이 비운 삼도수군통제사의 자리는 원균이 맡았으나 다대포와 칠천해전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전사하였고, 많은 군선은 물론 거북선까지 모두 파괴된 상황이었다. 이때 다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겨우 전선12척과 120명의 수군을 가지고 적 앞에 서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이 미약하니 육군과 합심하여 싸우라고 했고 이순신은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다.

아들 규가 선조는 갖은 고문으로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또 죽이려 할 텐데 왜 충성을 하느냐는 절규에 대한 이순신은 **"충은 의리다. 의리는 왕이 아닌 백성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1597년 9월,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선 수군에는 죽음의 공포가 만연했다. 부하 장수는 겁을 먹고 달아나고 마지막 희망 이였던 거북선마저 불타고 군사들의 사기는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이순신은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則生 必生則死)** 말하며 군사들에게 용기를 준다.

일본 군대는 이순신의 조선수군을 정리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한 후 해상을 통해 바로 한양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조선수군 11척의 전선은 두려움에 나아가지 않고 이순신의 전선만이 앞장서서 싸우게 된다. 이순신의 모습을 본 나머지 11척의 배들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면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싸우게 되고 피난을 가던 백성들도 함께 돕게 된다. 판옥선은 마치 거북선처럼 돌격을 하며 일본선들을 모두 짓밟으며 충파, 유인술, 일자진등 다양한 전술을 펼치면서 일본수군을 정신없게 만든다. 거기다가 화포공격을 하면서 일본의 함대를 침몰시키게 되어 그 결과 31척의 배가 침몰되고 90척의 배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버린다. 해류가 바뀌어 일본선들을 명량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에 있던 나머지 일본선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해류를 따라 퇴각을 한다.

그리하여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무려 20배가 넘는 330척의 수많은 일본군을 대파하게 된다.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 굳이 가장 힘겨웠던 명량해전을 선택한 이유를 이순신 장군 개인적으로 일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시기에 최대의 성과를 올린 그 정신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 후반부에서 사실감 있고, 역동적으로 펼쳐진 61분의 전투신은 관객의 눈을 스크린에서 못 떼게 만들었고, 화면과 함께 적절하게 맞춰진 배경음악은 긴 여운으로 다가왔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 전반부에서는 정유재란 발발과 그 속에서 조선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순신의 고뇌와 아픔을 다루고 있는데 어우러지지 못하고 맴맴 도는 듯 한 느낌과 함께 너무 자주 클로즈업된 인물묘사는 다소 과하게 웅장함을 주고자 해서 부담스러웠다.

영화 속에서 임진왜란 당시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간 선조는 민심을 잃은 반면, 적에게는 물론 같은 편인 조정에서 조차 배척 받았던 이순신 장군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흐트러짐 없는 강직함과 강한 자신감으로 역경을 헤치고 나갔기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12척과 330척이라는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강한 리더쉽과 지리적 특성을 통해 전략을 펼치는 뛰어난 지략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움츠러든 부하들을 다독여 독려하고, 백성들을 돌봄에 몸을 바쳤다. 그런 그를 누가 존경하지 않겠는가…

영화는 거기에 관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백성을 버리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써 적을 두려워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그의 마음… 백성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울림을 만드는 것이었다.

백성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국민들도 똑똑하고, 앞에서 떠들기만하는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때의 이순신 장군처럼 사람들을 위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한 조직의 리더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